



누군가 나서야 한다

국제적 기업과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주자들에게 좁은 국내에서 안주하는 집단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는 건 아닌가. 세계와 더불어 ...

金宇中 / 대우그룹 회장

우리나라 말에「콩가루 집안」이라는 게 있다. 이런 집안에서는 식구끼리 치고 받을 줄만 알지 집 밖에서의 활동을 통해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줄 모른다.「구들목 장군」이라는 말도 있다. 밖에서의 꿈쩍 못하고 집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말한다.

밖에서 조용해야 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안에서는 큰소리쳐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들의 공통성은 내향적이고 음성적이고 관심은 바로 옆집 사정에 쏠려 있으며 사회 밖의 큰 변화는 모르거나 최소한 무관심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을 갖고 갑론을박하게 된다.

외국에는 제로섬(zero sum)사회라는 표현이 있다. 말 그대로 각 구성원의 몫을 합치면 영(零)(zero)이 되는 사회이니까 그 조직에서는 누군가 더 갖게 되면 반드시 덜 갖게 되는 사람이 있게 된다.

가까이 우리 주위를 살펴 보면 조선시대를 제로섬 시대였다. 철저히 경직된 농경사회 신분사회(身分社會)였고, 대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동생도 되었다가 신하도 되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남의 나라 것을 넘보지 못하고 주어질 몫이나 잘 지키면서 만족해야 했다. 밖에서 무엇인가를 가져다 나라 안에 배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외화(外禍)」로 사회를 망칠 사람으로 간주되었다. 외부에서 유입(流入)되는 것이없으므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안 쓰고 지내거나, 동족의 것을 빼앗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니 중요하지 않은 것에 각종 트집을 붙여 남을 못살게구는 퍼를 쓸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문화 환경에서도 나름대로의 기계를 보였던 분들도 많았다. 그러나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절약해서 무언가 형성해 놓으면 구두쇠라고 놀렸고,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에서 새로운 것을 가져오면 이적(利敵)행위를 했느니 미풍양속을 해쳤드느니 그럴싸한 명분을 붙여 비판받기 십상이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사람은「질서 파괴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결과가 좋게 나오기라도 하면 이제 까지 그토록 비판하던 사람들이 잼싸게 참여할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일할 때는 상부상조가 아니고 분배에서는 상부상조라고나 할지. 따라서 진취적이고 외향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좋은 결과가 확실시되었을 때 그 분배에 잼싸게 참여하는 것이 똑똑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런 성향은 비단 조선시대뿐 아니라 사회주의가 팽배하던 유럽이나 중남미(中南美)국가들에서도 보편적이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우리나라 그리고 미래의 우리 문화다. 한 기업이 부족한 정보 속에서도 큰 위험부담을 안고 해외 신시장(新市場)을 개척하면 어느 사이에 한국 기업체끼리 경쟁을 벌이고 신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잼싸게 모조품이 나타나서 발명가를 꼴탕먹인다.

해외에서 큰 리스크를 안고 외국 의 일류 기업과 경쟁하기보다는 좁은 국내시장에 안주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분야에 참여하고, 복잡한 제조공정을 요하는 업종보다는 부동산, 사채, 향락사업 등 서비스업에 손대

는 사람이 더 평가받는 전통이 수립되어서는 곤란하다. 학문·예술·종교등 모든 분야에서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우리 후손에게 더 나은 경제·사회·문화적 전통을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제사회가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선진국 젊은이들과 모든 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할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제로 섬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같은 제로 섬 문화는 조선시대에 끝났어야 했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외향적·진취적 전통이 심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99%의 공(功)이 1%의 과(過)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겠고, 모든 일엔 양면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회라야 발전

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 엘리자베드여왕 치하에서 영국은 심지어 해적들에게까지 귀족의 작위를 주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고, 포르투갈은 몽상가인 콜롬부스를 지원해서 신대륙을 발견케 했으며, 스페인은 탐험가들에게 막대한 처부를 허용함으로써 남미(南美)를 식민지화시킬 수 있었던 역사를 참고해야겠다.

그들의 정책이 모두 옳았다는 얘기가 아니다. 큰 발광체일수록 그늘은 진하다. 각 구성원의 장기(長技)를 최대한 살리고 다소 부족한 점은 점차 순화시켜나갈 아량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기업이 규모, 기술 수준, 책임의식, 자본조달 능력, 사회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 면에서 볼 때 국제수준에는 상당히 미달한다. 학자, 종교인,

종교인, 예술인, 학생, 모두 그렇다.

은 길이 천리라면갈 길은 만리도 넘는다. 선진국과의 격차는 우리 후손, 우리의 젊은이들이 메울 수밖에 없다. 선진국 젊은이들처럼 노력해도 그들과의 격차는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우리는 그들과 같은 정도의 노력이나 하고 있는가고 묻고 싶다. 국제적 기업과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주자(代表走着)들에게 좁은 국내에서 안주하는 집단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 아닌가?

세계와 더불어 살자. 조그마한 개발 성과에 만족하거나 콩가루 집안, 구들목 장군의 모습을 보이지 말자.



한국치정희발기인명단

▲서울 : 강영규, 광원배, 김길수, 김계종, 김동순, 김동기, 김홍기, 김현풍, 김광식, 김지호, 김찬숙, 김규택, 김길연, 김동규, 김본수, 김정균, 김일경, 김영주, 김화규, 김기혁, 김명동, 문홍조, 박상남, 박충호, 박만수, 박윤수, 박용학, 박순원, 박우찬, 박인출, 변영남, 서 활, 서정희, 서영규, 신민철, 신덕재, 신종호, 신형순, 안 박, 우광덕, 윤석민, 윤희철, 유광길, 양정강, 이종수, 이주봉, 이기택, 이병태, 이종문, 임형순, 이한무, 이명구, 이연호, 장지우, 장상헌, 정재규, 전병찬, 정관희, 정상주, 주낙립, 최광철, 최순규, 한동환, 허연옥, 홍순용, ▲부산 : 김원우, 김명득, 김경용, ▲대구 : 강신형, 변종수 ▲인천 : 김규환 ▲광주 : 노지섭, 정달수, 황해순, ▲경기 : 김장연, 윤창혁, 황규선, ▲충남 : 변석두, 유형식, ▲충북 : 김확성, ▲경남 : 김화석, 박연수, ▲경북 : 이종문, ▲공직 : 변용성, 이종훈, 이종갑, 정동균, 남동석, 이재현, ▲군진 : 김판식